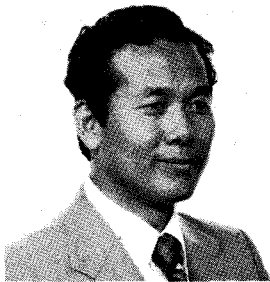


肯定的思考와 Office Action



陳 煥

〈在美韓國辨理士·藥學博士〉

이제는 7년을 즈음하는 美國移民生活를 反芻해 보면서 筆者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나 생각해 보는 時間이 많다. 人生살이도 50줄이 넘어들고 보니 空手來 空手去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이 저 富貴榮華를 누린 솔로몬王과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를 연발하게 된다. 그러나, 美國人의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는 筆者가 한국에서 잔뼈가 굵어질 때에도 너무나 念願하던 일이기에 이제는 많이 體質에 培養되어 가는것을 느낀다.

자동차를 몰고갈 때 뒷차가 갑자기 추월하여 앞에 끼어들어도 이제는 속으로라도 욕대신 “얼마나 바쁜일이 있기에 이럴까” 오히려 동정의 마음마저 생긴다.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현금을 인출할 때도 앞의 아낙네가 은행teller와 아무리 長時間 私談하고 떠들더라도 그의 말할 自由를 만끽하는 자세에 오히려 승상이 가니 말이다. 한시간 거리의 New York, Washington 간의 비행기를 탔을 때 두시간동안 기내에 탑승시켜 놓고 떠나지 않고 있어도 수많은 승객중 단 한사람도 不平과 그 理由를 따지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의 인내와 肯定的인 思考에 두손을 들었다는 美國을 잠시 방문한 어느 韓國牧師의 흥분된 간증을 들을때에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感動이 없었던 일은

지금도 기억한다. 아무리 女祕書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과실을 꾸짖는일은 생각지도 않고 일의 事後處理에 부심하는 우리 사무소의 Attorney(변리사)들을 볼때에도 이제는 “어떻게 저럴수가 있을까”하며 의아해 하고 신기해하지도 아니하니 말이다.

살아가는 삶의 現場에서도 否定的인 思考(Negative Thinking) 나 悲觀的인 言語가 희귀하다. 언제나 안면에 微笑를 띄고 “Yes, Yes!” 또는 “I Will try(최선을 다해보지요)”, 만약 “No!”할때에도 꼭 그뒤에 “Thank You”를 부쳐서, 예를들면 음식을 더 먹으라해도 “그만 먹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서 그런지 美國에서는 一般藥中 消化劑가 거의 팔리지 않는단다. 너무나도 하찮은 일을 가지고 배꼽을 쥐어가며 웃고 장시간 담소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내가 왜 점잖치 못하게 이렇게 경망하게도 이들과 서시닥 거릴까”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근엄한 자세의, 굳은 표정의 옛날 筆者의 한국에서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서 픽웃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美國人이 되어가느가 보다”하며 또한번 픽웃는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미국 特許廳(USPTO)에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이 일차 심사후 Office Action (通知書)을 출원인이

